

전남도-3개군 5GW 풍력프로젝트 갈등

〈화순·보성·영광〉

郡 독자 추진에 道는 풍력산업 육성 순회 설명회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초대형 사업인 5GW 풍력프로젝트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화순과 보성 등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전남도가

재정적 불이익 부여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9월부터 17일까지 13개 시·군을 돌며 '전남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5GW 풍력발전 원칙'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는 풍력발전 개발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지점을 내려 보낸 바 있다. 도는 이 지침에서 도내에서 육·해상 풍력발전을 하려는 사업체는 도내에서 생산된 터빈을 사용하고 5GW 협회 의무가입, 투자협약이나 인·허가 시 의무 고지와 사전에 도(道) 5GW팀과 협의 등을 주문했다.

이 프로젝트는 5GW 풍력단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발전사업비 18조 5000억원, 산단조성비 2조원 등 20조 원대 사업이다. 도는 고용효과 2만5000여명, 연간 640억원의 지방세 수입,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 700만t 감축 등을 기대

하고 있다. 도는 세계 터빈시장을 이끄는 덴마크 베스타스(Vestas)와 포스코에너지 간 협력을 통해 풍력터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과정에서 화순과 보성, 영광 등 일부 지자체가 세부발전이나 유니시티, 삼성중공업 등과 20~200MW급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풍력발전 지원 정책, 단체장의 투자유치 유치 등 강박한 제재 원칙을 밝힐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전남도가 규모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풍력단지 조성에 제동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풍력단지가 난립하면 효율성보다는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고 업체의 익숙한 쟁점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순천시 마을기업 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지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6일 오후 우수 마을기업 판매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마을기업박람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204개 우수 마을기업이 참가해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4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하 빈자리 흰다리새우가 차지

전남해수원, 남획·환경변화 작년 생산량 35t 불과

토종새우(대하)의 양식산업이 붕괴하면서 그 빈자리를 중남미가 원산지인 흰다리새우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개발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질병 감염과 낙후된 양식시설로 대하 양식산업이 무너지면서 2006년부터 질병에 비교적 강한 흰다리새우(왕새우)가 도입돼 지역에 보급됐다.

실제로 전국 대하 생산량은 2001년 2081t에 달했던 것이 2006년 절반인 1022t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 81t, 2012년 35t으로 급감했다. 반면 흰다리새우는 2006년 661t에서 2009년 1812t, 지난해 2784t으로 대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영광과 신안 등 전남지역은 국내 새우 양식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대하 자리를 대신하는 흰다리 새우는 생김새가 비슷하다. 구별법은 대하가 연한 회색을 띠는 반면 흰다리새우는 연한 청회색이다. 이마에 달린 뿔이 대하는 길고, 흰다리 새우는 짧다. 최근에는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양식업계가 비수이다.

전남해수원은 이에 따라 신안과 영광 등 주요 새우 양식장을 중심으로 진단서비스를 나섰다. 해수원은 양식장 7곳을 정해 수질 점검과 새우 건강 상태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슬로시티 청산도 함께 걷고 싶은 명사는?

郡, 공모 이벤트 눈길

완도군이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함께 걷고 싶은 명사를 선정하는 공모 이벤트를 진행,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매년 4월 열리는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에서 명사와 관광객이 함께 슬로길을 걷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힐링 전도사' 이시형 박사, 마라토너 황영조, 인기 배우 손현주가 관광객과 함께 걷기에 참여했다.

이벤트는 오는 12월 6일까지 13주간이다. 매주 금요일 이벤트 참여자 10명을 선정, 완도 특산물 선물세트(52명)와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입장권(78명, 1인 4매)을 준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최근에는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양식업계가 비수이다. 전남해수원은 이에 따라 신안과 영광 등 주요 새우 양식장을 중심으로 진단서비스를 나섰다. 해수원은 양식장 7곳을 정해 수질 점검과 새우 건강 상태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실제로 전국 대하 생산량은 2001년 2081t에 달했던 것이 2006년 절반인 1022t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 81t, 2012년 35t으로 급감했다. 반면 흰다리새우는 2006년 661t에서 2009년 1812t, 지난해 2784t으로 대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영광과 신안 등 전남지역은 국내 새우 양식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대하 자리를 대신하는 흰다리 새우는 생김새가 비슷하다. 구별법은 대하가 연한 회색을 띠는 반면 흰다리새우는 연한 청회색이다. 이마에 달린 뿔이 대하는 길고, 흰다리 새우는 짧다. 최근에는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양식업계가 비수이다.

전남해수원은 이에 따라 신안과 영광 등 주요 새우 양식장을 중심으로 진단서비스를 나섰다. 해수원은 양식장 7곳을 정해 수질 점검과 새우 건강 상태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명랑 해결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

최근 해양경찰청 주관 '해상 종합전술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목포해경 1509함 승조원들.

올 최고 艦은 목포해경 1509함

〈함〉

해상 종합전술 경진대회 1위 영예 작년·올 불법 중 어선 40척 나포

목포해경 1509함이 최근 해양경찰청 주관 '해상 종합전술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해양경찰청 올해의 최고 함으로 선정된 것이다. 해양경찰 청실 60주년(9월10일)을 맞아 경비함정 단정 활동, 작전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대회에서 1509함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대표로 참가해 탁월한 실력을 뽐냈다. 7개 팀이 참가한 이 대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 영종도 인천 해양경찰 특공대에서 열렸다. K-5권총 등 진압 장비 분해·조립 및 사용법 평가, 심폐소생술, 지혈법, 산소소생기 사용 등 응급처치 평가에서부터 도주하는 선박을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에 따라 제압하는 전술 등을 평가했다. 서해해경청 주관 예선 경기에서부터 좋은 팀워크를 보여준 1509함은 평소 실전 같은 연습과 전평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월등한 실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 1509함은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26척을 잡아 최다 나포 함정이 됐다. 올해도 14척을 나포했다. 1509함은 가장 불잡기 어려운 무허가, 영해침범 등 불법 조업 선박을 나포해 해양주권 사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최음의(경청) 함장을 비롯한 승조원 44명(전청 포함)은 이번 대회 1위로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일부 직원은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최 함장은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절반 이상을 잡는 목포해경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대회에 임했다"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해양주권 수호와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공대에서 열렸다. K-5권총 등 진압 장비 분해·조립 및 사용법 평가, 심폐소생술, 지혈법, 산소소생기 사용 등 응급처치 평가에서부터 도주하는 선박을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에 따라 제압하는 전술 등을 평가했다. 서해해경청 주관 예선 경기에서부터 좋은 팀워크를 보여준 1509함은 평소 실전 같은 연습과 전평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월등한 실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 1509함은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26척을 잡아 최다 나포 함정이 됐다. 올해도 14척을 나포했다. 1509함은 가장 불잡기 어려운 무허가, 영해침범 등 불법 조업 선박을 나포해 해양주권 사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최음의(경청) 함장을 비롯한 승조원 44명(전청 포함)은 이번 대회 1위로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일부 직원은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최 함장은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절반 이상을 잡는 목포해경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대회에 임했다"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해양주권 수호와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창단 30주년 정기연주회

목포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3일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창단 30주년 기념 제100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립교향악단은 1983년 창단 연주 이후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연 4회 정기연주회와 각종 기획연주회를 비롯한 예술의 전당 초청 교향악 축제 등에서 초청 연주회를 열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1983년 창단 연주 첫 곡으로서 모차르트 3대 오케라중 하나인 '코시 판 투테' 서곡과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연주된다. /목포=교규석기자 yousou@

새 얼굴

“학부모에 희망·신뢰주는 교육실현”

김제형 신안교육장

“학생들에게는 꿈과 끼를, 교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지역 사회와 학부모에게는 희망과 신뢰를 주는 교육실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제형(58) 신안교육장은 “독서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고 기초·기본 학력을 튼튼하게 다지는 한편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컨설팅강화를 일상화해 학력 신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장은 이어 “소규모 학

교과 복식학급에 대한 지원 강화해 명실공히 신안교육이 도교육의 모델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남 출신인 김 교육장은 강진 옹천초등학교교장과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신안교육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안=이성진기자 sslee@